

# 익산시, 스마트 미래도시 도약 시동

###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환경강 수변도시 프로젝트 가동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정 박차

익산시가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본격화하는 등 스마트 미래도시로의 도약에 나선다.

익산시에 따르면 민선 7기 공약이행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미래도시 건설의 100년 대계를 앞당긴다. 시는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사업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도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에 도전한다.

시는 총 2500억원을 투입해 현재 철도 역사 부지 등을 활용, 선상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한다. 이 공간에는 시내·외 버스, 택시, 승용차 등을 위한 환승주차장이 들어서며 상업·주거·문화 시설

등이 함께 입주한다.

이 후 2·3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해 명실상부한 사통팔달 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한다.

시는 또 자율주행 자동차 거점도시 조성을 목표로 국토부의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관련 산업의 기반육성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와 함께 홀로그램 산업을 집중 육성해 디지털 뉴딜 비대면 산업을 선도하는 한편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여기에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대학병원, 수의과대학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전국 최대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에도 시동을 건다.

시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도 집중한다. 전북도 최초로 시도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바탕으로 도심 속 공원에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제공한다.

또 환경강 수변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과 은

퇴자가 공존하는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유입과 함께 안전과 환경을 아우르는 스마트 도시를 구현한다.

시는 이와 함께 세계유산을 활용한 500만 관광도시 실현을 앞당긴다.

시는 제3차 법정문화도시 예비도시에 선정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정문화도시로의 지정에 나선다.

특히 마름사지 등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중심이 된 동부권과 용안생태습지·교도소세트장 등이 위치한 북부권, 익산근대역사관·원광대 자연식물원 등을 활용한 도심권을 3대 관광라인으로 묶어 명품 관광도시를 실현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민선 7기 3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괄목할만한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철도와 미래기술을 접목시킨 신성장 동력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고 청년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희망 익산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창군 도립공원 선운산 계곡 깊숙한 곳에 꽃무릇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고창군 제공>

## 고창 선운산 꽃무릇 만개 붉은 물결 장관

고창군 도립공원 선운산 계곡 깊숙한 곳에 '빨간 주단'이 펼쳐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고창 선운산 계곡 사이사이에 '가을의 전령사'인 '꽃무릇'의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선운산 꽃무릇은 5월께 잎이 나왔다가 7월께 지고 나면, 9월 초 꽃대가 솟아난다. 9월 하순이 되면 꽃이 붉게 피어오른다. 한 뿌리이면서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해 '화엽불상견 상사초(花葉不相見 想思草)'의 그리움과 아련함으로 회자되는 꽃이다.

꽃무릇은 통상 개화 후 열흘정도가 절정기로 알려져 있다. 가려진 모습과는 달리, 뿌리에는 코끼리도 쓰러뜨릴 정도로 강한 독이 있다. 그 옛날 단청이나 탕화 보존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 절 주변에 꽃무릇을 많이 심었다고 전한다.

김성근 고창군 산림공원과장은 "선운산 곳곳에서 꽃무릇을 감상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선운산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점검 등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군산 방축도 83m 출렁다리...바다위를 걷는다

### 방축도~광대도...다음달 개통 14km 명품 트레킹 명소 탄생

군산 고군산군도의 방축도 출렁다리(사진)가 다음 달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

군산시는 1일 3·4회 오갈 수 있는 육도면 장자도와 방축도를 잇는 단일 여객항로 개설과 함께 오는 10월에 개통할 계획이다.

출렁다리는 육도면 방축도와 무인도인 광대도를 연결하는 83m 교량(현수교)으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으면서 고군산군도의 비경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이 곳에서는 고군산군도의 명물인 독립문바위를 조망할 수 있고 산책로도 개설돼 트레킹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시는 당초 고군산군도 끝자락에 자리한 육도면의 3개의 유인도서인 말도, 명도, 방축도와 무인도서인 보농도, 광대섬 등 5개 섬을 연결하는 1278m의 인도교를 설치한 뒤 출렁다리를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미 설치



마무리 단계인 방축도 출렁다리를 먼저 개통기로 했다.

인도교는 제말도~보농도 308m, 보농도~명도 410m, 명도~광대섬 477m, 제광대섬~방축도 83m 등 총 연장 1278m로 설계됐다.

시는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이곳에 인도교가 설치되면 도서 자원과 인도교를 연계해 말도에

서 방축도까지 이어지는 14km를 걸으면서 힐링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트레킹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도교 연결사업은 지난 2017년 11월에 착공한 이후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3년 3월 개통할 전망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 순창군 확진자 발생에 장류축제 전격 취소

순창의 대표축제인 '장류축제'가 올해도 열리지 못하게 됐다.

순창군은 오는 10월15일부터 3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제16회 순창장류축제'가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에 의해 전격 취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축제를 준비하던 군은 당초 관광객

은 온라인으로, 군민에게는 찾아가는 축제를 기획해 지역민을 위한 축제를 마련하고 있었다.

지난 17일 기준 접촉대상자 대비 62%의 순창군민이 2차 백신 접종을 마쳤고, 10월 말에는 8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같은 날 관내 한 대안학교에서 45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 남원시 요천에 어린 다슬기 26만마리 방류

남원시가 지역 대표 하천인 요천에 26만 마리의 어린 다슬기를 방류했다.

방류 다슬기는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 시험장에서 자연산 어미 다슬기로부터 자연산 출육도를 통해 생산된 종자다.

다슬기는 하천과 호수 등 물이 깊고 물살이 센 곳의 바위에 무리 지어 서식하는 담수 패류로 물고기배설물과 이끼 등을 먹어 수질정화를 하며 민물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저지방, 고단백질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시력회복, 숙취해소, 간기능 회복 등에 효능이 있어 '민물 옹당'으로 불린다.

해장국, 무침 등 다양한 조리가 가능하며 경제성이 높지만 생활하수, 농약 등 수질오염과 환경변화 등으로 자원량이 크게 줄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관계자들이 요천에 어린 다슬기를 방류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 정읍시 하반기 귀농·귀촌학교 교육생 모집

정읍시가 하반기 귀농·귀촌학교 참여 교육생을 모집한다.

귀농·귀촌학교는 예비귀농·귀촌 희망자와 초보 귀농인을 대상으로 현장에 맞는 체계적인 농업교육과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돕기 위해 (사)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한다.

신청은 24일까지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며, 교육비는 자부담 20만원이다.

신청은 지원서와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구비서류를 팩스(063-533-6799) 또는 이메일(jereturn6789@naver.com)로 하면 된다.

교육은 오는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주말(토, 일요일)을 포함해 14일간 진행된다.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생은 귀농·귀촌 정책안내, 농작물 재배와 가공, 농기계 교육, 귀농·귀촌 사례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완료한 교육생들에게는 수료증(100시간 인정)을 발급한다.

귀농귀촌센터는 도시민에게 정읍지역 대한 이해와 각종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의 상담과 정보 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귀촌학교를 알차게 운영해 귀농·귀촌의 새로운 가치 및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과 농촌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